

교수기고...수서사건은 끝났는가

정직이 최상의 정책

I. 타조의 형태와 사 건처리방식

타조란 높은 도망을 치다 급하면 모래속에 머리만 묻어두고 숨는 버릇이 있다고 한다. 수서지역 주택조합 특별분양사건(이른바 수서사건)의 과정을 지켜보면 수서지역의 사정처리방식에 타조의 형태와 사건의 형태가 닮았는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타조는 사냥꾼의 위협을 느끼면 한 번에 한 번에 사냥꾼을 향해 돌진하는 습성이 있다. 수서지역의 사정처리방식은 타조의 형태와 닮았다. 수서지역의 사정처리방식은 타조의 형태와 닮았다. 수서지역의 사정처리방식은 타조의 형태와 닮았다.

II.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결국 세상에 비밀이란 없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지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엄청난 부정사건에 있어서는 사건의 핵심인 본인을 위대하고 모르게 죽여버림으로써 정치적 추문을 은폐하려 했던 세정 정인숙사건이 되살아나 거꾸로 당대의 정치적 거물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아니한가? 죽음보

수는 없다. 우리는 나쁜 짓을 했더라도 끝까지 비밀한 자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으며, 진정으로 누우지는 자에게까지 잔인해질 수는 없는 것이다.

III. 우리의 자세: 맺는 말에 갈음하여

국민으로서도 시간이 은폐자의 호기심이 고작이고, 가해자에 대한 보복(報復)이나 당사자의 참회만 없으며, 특히 냉정한 진상규명과 처리를 통한 후세에의 교훈이 시대에 맞는 특이 필요하다는 기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서사건이 이런 정치적 추문처럼 처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바로 오늘 이

편이 아님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독일극작가 브레히트가 말한 것처럼 이른바 '장기적 분노'가 필요하다. 커다란 불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끈질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정치적 성숙성이다. 별력 화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국민은 또 다시 권력자의 업적여감을 받게 된다.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긴 세월동안 부정적인 자들을 지도자로 대접해야 하고, 그들로부터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수서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사건의 진모를 밝혀 의법처리하라.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안겨진 것은 권력층이 준 모멸감과 권력층에 대한 환멸 뿐이다. 우리에게 권력자-정치인이란 정경 "에대조 그 들이 없었더라면 생가지도 않았을 문제들을 다루는 사람들"에 불과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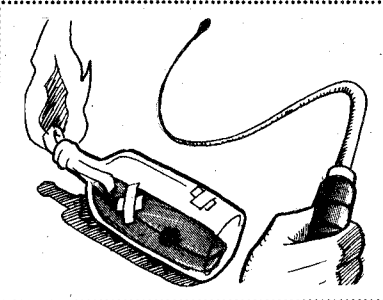
김성태
(법대교수·법학)



치안본부가 '최정용공서력의 준동'을 막기 위해 '화염병치환법'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화염병 사용은 사회질서를 혼란케하고 학생운동을 과격·급진화하는 도구이니 이러한 행동을 못하도록 소탕해버려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취지인 듯하다. 시위때 화염병을 던진 장면이 찍힌 사진만으로 범죄자에게서 가능한 수배조치가 성립된다면, 화염병투척자는 곧 범죄자라는 통칙이 성립된다. 그러나 그 의도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화염병투척 사진이 형집행정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에 따라 기소중지가 내려진 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 이들은 일단 기소를 해놓고 기소중지가 되더라도 시위자의 취척과 해외여행 등에 걸림사유를 만들어 사회활동을 제약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항상 시위의 선두에 서서 동료들을 보호하고 타락한 정권과 그 하수인인 경찰에 강력한 응징을 해왔던 학생들이 시위주동자, 폭력범 등의 명에 쓰고 그동안 활동조차 위축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공안정국이 온

폭력장면은 무조건 '범죄'인가

나라를 휩쓸던 89년과 90년도에 1학년 학생이 철모로 시위에 몇 번 참가했다가 구속된 경위는 정권의 비도덕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좋은 예다. 대학과 사회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신입생조차도 아랑곳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현실을 개탄한다.



지 않을 수 없다. 만20세도 되지 않은 이들이 얼마나 파격했기에 범죄자로 몰려야 하는가. 모 위정자는 자신도 학생시절에 소위 테모에도 가담했고, 사회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의 공로를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정권이 자신의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학

생들의 행동을 불순세력, 폭력집단으로 취급하며 '체제수호'라는 말을 들먹이고 있다. 이들 폭력집단내 자신의 위치를 두려워한 매저키스트들의 통상적인 수법에는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다. 더욱이 학생들과 광범위한 민중들의 요구가 단순히 우매한 대중의 개입이해에만 치우친 목소리는 아니지 않은가. 철저한 현대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민중들은 폭압적이고 만민중적인 정권에 대해 몸으로 항거해 왔으며 자신의 보호를 위해 조잡한 무기를 들고 나서기 시작하지 않았던가? 농민들의 죽창, 노동자들의 스패너와 망치, 철거민들의 파이프, 학생들의 돌과 화염병은 시위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가산적인 것, 잘못된 정권에 대한 상징적인 무기였다. 이를 모면하는 '부조리에 항거하는 민중들의 합법적인 폭력'이라고 말한 기억이 생생한 지금, 학생들의 화염병시위를 사진만으로 수배, 구속한다는 논리는 전혀 엉뚱한 폭력이라 볼 수 없다.

대형 부정사건 처리지침 가설

단계별 작성명칭	요점	적절한 발언예	내부지시	수사·정보기관에 대한 지시	과거의 경험	주의 사항	註
제1단계: 첫방기 작전 (무반응)	의도적 무시	*"알고의 기지도 없는 헛소문!" *" 사실무기 " *"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 (관련자) *" 공서대응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 *" 논평할 기지조차 없다 "	*입장조치를 지시 *발령(정보부출처)의 선택, 조치	*보도경위 철저파악지시 *비상근무체제에 전환 *정보수집 강화지시	*외로 잘 먹히지(2)	*당황하지 말라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 *기자의 질책을 살피라	1) 비서·보좌관들을 내세워도 충분 2) 워낙 엄청난 국민들이니까
제2단계: 오리발 작전 (전면부인)	일단 필적 뒤고 붙는다	*" 전혀 모르는 일 " *" 들은 바 없다 " *" 내부 처리 절차도 모르는 자의 주장 " (관련자) *" 금시조 " *"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일 " *" 기자가 소심할 뿐 " *" 그런 엄청난 부정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	*관련자를 불러 사실조사 *기자질문제해 *관련문자에 대한 보안조치	*정보기관 보고청취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난다	*철저히 부인하라 *뒷조를 보이지 말 것	1) 그것이 국민의 상식이나, 고위층의 상식이 나기 문제
제3단계: 엇가락 작전 (제1차 지연전술)	질질 끌어서 시간을 우리 편이다	*" 듣는 현도 ,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겠다 " *" 사건임을 전제 , "그렇지 않다"	*합구권을 내릴 것 *대부분 접촉중지의 축소·통합	*관계기관대처회의, 의견조정 요청 *반대견영 관련지 지시 *반대견영 강령에 대한 공작 착수	*이 단계부터는 신중을 기한다	*말꼬리가 잡히지 않도록 하라	1) 언론·탈영사간이여 여의치 않음
제4단계: 떠넘기기 작전 (극히 일부 시인)	언론에 책임 전가	*" 언론이 너무 앞질러 간다 " *" 부당한 오해가 있었다 " *" 일부 사실은 있다 " *" 사실과 다르다 " *" 경위를 조사하겠다 "	*기자출입통제 *관계기관과 긴밀협력지시 *내부조치에 대한 단속 2) *주요시위 파기	*수사·법무, 관련서류의 처리문제 협의 *반대견영관련자의 구속범위결정 *형사처리에 대한 보호조치	*기자들에게 밥을 사주고 손질을 두둑히 준다 *반대견영관련자를 출원 다	*이 사건의 역을한 피해자처리를 보도록 하라	1) 기자들에게 소소한 선물이기 때문이라고 둘러대는 것도 일찍 2) 배신자의 일로를 실감나게 교육할 것
제5단계: 깔고 동계기작전 (제2차 지연전술)	여론이 수그러 들기만을 기다린다	*" 이제 공서보고(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이다 " *" 발령의 진의(차의)를 조사중이다 " *" 조만간 대학회의를 소집할 생각이다 " *" 자제조치위협을 취할 예정 " *" 수사기관에서도 내사중인 것으로 안다 " *" 말 더 늘어났으니 말라 "	*다들 건도 달랠아 타지지 않도록 철저감시지시	*책임을 뒤집어쓰게 하는 직접 결정 2) *기타 수습자의 개별방안 *참고인 입맛조치 *수사기관으로 하달	*상당한 인내심을 필요함 *인내심을 크게 터뜨림 3)	*의외충격 같은 것은 언론 시끄럽고, 담담한 카타나, 소집요구 가 있다면다 목숨할 것	1) 위중한 동지가 있으면 그 핑계로 며칠은 더 끌 수 있음 2) 목숨할 것, 재판에서 실수 없도록 철저한 정신교육 3) 요요한 잘 안함
제6단계: 칠면피 작전 (일부 시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둘러댄다	*" 그런 의도는 없었다 " (관련자) *" 사실무기 " (관련자) *" 전혀 기어코 안다 " (관련자) *" 대처방법을 논의중이다 " *" 검찰청과 법원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 " *" 다른 기관의 협조요청에 따른 것일뿐 " (대변인) *"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관련서류의 변조 *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두할 거부 리해설	*수사기관 공개지시 2) 3)	*"뒷부분이 진도했다"는 "속근이라도 기지"없이 의법조치하라고"고 둘러 두면 효과적 *당첨한 TV에는 얼굴을 내밀지 않는 것이 좋다	*언론이 침소봉한 사건이지 않은 하등은 내용임을 강조	1) 아니, 생각이 안나는데 어떻게 지어? 2) 성의없는 철저수사를 다짐 3) 검찰청에서 보내도록 불려주는 일 있지만
제7단계: 꿀먹은 방아작전 (제3차 지연전술)	침묵은 금이다	*" 위대 미묘한 문제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 조만간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 위해 회의를 재소집하기로 했다 " *" 이런 식으로 까발려 사회불안을 조성하면 과연 누가 덕을 보겠느냐 " *" 일단 검찰수사결과를 중용히 지켜보자 " *" 비판 " *" 다른 언론도 하지 " *언급회피	*언론 날조기까지 한의 유인 비에 현혹되어 있어 많은 비 직무에 충실한 것을 인정	*수사결과와 지보지시 *악성 유언비어 차단지시	*인원관리를 펴도록 강을 준다 *국민관심을 돌릴만한 정거리를 급조, 대대적으로 떠돌자 3) *광소 "뜻이 통하는" 각계 지도자와 조한 또는 오인 4)	*마음 약하지 말 것 *이런 일로 국민들에게 다른 어떤 것도 양보할 필요는 없다	1) 복속의 호전성 강조, 그러나 옛날보다 약 2) 정확히 말하자면 "들려"내서 개명신명하는 불만, 피하면 그만이다. 3) 이대로 제발 지진이 나거나 전쟁이라도 터져주었으면 4) 이쯤에서 간절한 기도를 해주시기도 한다.
제8단계: 호지부지작전 (수습)	동문서답	*" 관계받은 제발방지를 강구하라 " *" 일부 정치인의 구대면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 " *" 검찰청의 고소를 특별히 지시한다 " *" 우리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할일이 너무나 많다 "	*관련자 일부 사표수리, 인사 개편 5) *중상심 강한 고함추배 발발	*수사결과와 "당국지시"	*정치중립성위협, 윤리위원회, 청탁추진위원회 등 그밖에 위원회는 모두 설치한다 *수습을 강령대위를 만드는 사명을 하면 도움이 된다 6)	*조조한 빛을 보여서는 안된다	1) 미처 남의 일만들 말로 얼버무릴 것 2) 정확히 말하자면 "들려"내서 개명신명하는 불만, 피하면 그만이다. 3) 이대로 제발 지진이 나거나 전쟁이라도 터져주었으면 4) 이쯤에서 간절한 기도를 해주시기도 한다.
제9단계: 역공작전 (끝마무리)	국면의 신속한 전환	*" 이미 끝난 일 " (대변인) *" 사태가 일단락 " (대변인) *" 과거에 연연할 때 " (대변인) *" 이제는 정적의 선동에 일심한 과거의 악습은 버려야 할 때 " *" 책임있는 자가 유언비어로 국민을 현혹하고 정치풍토를 혼탁케 한다 " *" 유언비어 날조포도 때문에 귀를 씻어야 할 판이다 " *" 안하고 꾸부리는 눈들은 몽땅 잡아들여겠다 "	*주요현안 강공으로 몰아붙일 것을 지시 *상기일련하여 정적인 사건인 실을 앞당길 것 *다들 새끼의 참사건(국외) 장미빛 설계발 2)	*시위집단훈련 강화 *국가보안조성세력에 대한 강력 조치지시 3)	*농성, 시위, 화물, 공개 결의, 규탄대회에 나서 는 이들이 더러 있지만 재물을 쫓아낸다. 워낙 명 청한 국민들이니까	*잘못을 제대로 시인하지 말라 *그것만이 청렴한 지도자로 남는 길이다	1) 이 한마디를 틀림없이 집착한다. 2) 현실여건, 예산문제에 신중을 것 있다. 여차 회담사항일 것이다. 3) 역시 행령으로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인간과 호흡하는 첨단기술

체신부공인 전자파장애시험기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컴퓨터!

80만원대 AT 컴퓨터의 기술혁명, 가격혁명, 삼성컴퓨터가 해냈습니다.

바야흐로 컴퓨터 대중화 시대! 당신은 어떤 컴퓨터를 원하십니까? 호환성도 좋고, 용량·처리속도도 충분하고, 데이터도 깨지지 않게 안정성이 뛰어난 AT 컴퓨터라면 어떨습니까? 그것도 가격이 80만원대라면! 국내 컴퓨터기술로는 혁명이 가까운 80만원대 AT 컴퓨터! —

80만원대 AT 컴퓨터, 삼성 알라딘 286은 이렇게 혁신적입니다.

- EMI** 자체 EMI 시험시설 (체신부 공인 전자파장애검정 지정시험기관)에서 철저한 테스트를 하여 유해전자파를 제거했습니다.
- KS** 완벽한 품질관리능력으로 공업진흥청으로부터 KS규격을 획득했습니다.
- 원래의 한계지침** 삼성조합 및 일반사용조합을 사용이 가능하며 기본 1MB의 충분한 메모리용량을 갖추었습니다.
- 칼라** 칼라의 보편화 추세에 따라 Hercules, MDA 등 모든 표준 CGA용 칼라모니터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마우스** 마우스 PORT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데이터의 그래픽 입력이 용이해졌습니다.
- 바이러스백신** 총 37종의 바이러스 피치 프로그램이 들어있어 바이러스의 감염방지, 진단, 치료 가능합니다.
- 일체화** CPU, FDC, PIO, SIO, RTC, HDC 등을 단일 보드 하에 충분한 기능을 수용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SLIM 고집적 회로설계로 SLIM형의 콤팩트한 디자인을 실현하였으며 HDD (5.4" 및 3.5")와 1개의 HDD (20MB, 40MB)를 동시에 장착,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RT RS-232C PORT를 사용하여 증진 및 각종 DB정보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S/W 고급 OA S/W인 MY-OF, MY-OF를 지원하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알라딘, CAP, STUDY 등의 S/W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라딘 286 모델별 권장소비자가격 (14" 모니터 포함, 75% 정도)

모델 NO.	권장소비자가격	주요 사양
SPC 4200P-CW 200	₩890,000	CPU: 80286 (12MHz) * Memory: 1MB * FDD: 5.4" (1.2MB), 3.5" (1.44MB)
SPC 4200P-CW 102	₩1,050,000	CPU: 80286 (12MHz) * Memory: 1MB * FDD: 5.4" (1.2MB), 3.5" (1.44MB)
SPC 4200P-CW 104	₩1,120,000	CPU: 80286 (12MHz) * Memory: 1MB * FDD: 5.4" (1.2MB), 3.5" (1.44MB)

삼성컴퓨터

삼성전자